



김준형  
기동취재본부장

농협(NH)은 생산자 단체라는 공익적 성격과 거대 금융지주라는 상업적 성격이 공존하는 만큼, 그 이면의 갈등이나 구조적 모순점은 '무소불위' 지역 농협 조합장은 예산, 인사, 사업권을 독점하는 1인 독점 체제이다.

농민을 돕기 위해 만든 거대 조직이 오히려 농민 위에 군림하거나, 금융 수익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협동조합이 오히려 '제왕적 조합장'의 사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 “무소불위” 농협 조합장

이사회나 감사가 있지만, 대부분 조합장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견제가 불가능하다. 이는 채용 비리나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내부적으로 은폐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근본 원인이 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을 통한 권력 유지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문제는 현지 조합장들이 자신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실제 농민의 목소리보다 '가짜 농민'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며 정책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는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이지만, 현재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조직'이라는 비판이 많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대의원 및 감사 선출 엄격히 선출하여, 조합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

는 대의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무자격 조합원이 아닌, 진짜 농민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실제 조사를 강화하고 명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압박해야 하며, 위탁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한 '돈 선거'를 거부하고, 조합의 경제사업(유통/판매) 실적을 근거로 감감히 선거 타파하고, 정책 투표를 해야 한다.

인사권, 예산권, 사업권을 독점하며 지역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선거철마다 '돈 선거' 논란이나 측근 인사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농민 없는 '농협 금융' (정체성 상실)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의 한계로 농민의 농산물을 잘 팔아주기 위해 금융 수익을 낸다는 취지와 달리, 수익의 대부분이 금융(은행)에서 발생하고 정

작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금리는 높고 예금 금리는 낮아, 농민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대상으로 수익 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매년 국정감사 단골 소재이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금융 사고로 연이은 횡령 및 배임은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고는 구조적인 내부 통제 미흡을 드러낸다. 중앙회의 감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지역 농협은 조직이 작고 폐쇄적이라 상급자의 갑질이나 괴롭힘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보호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예: 장수농협 사례 등)

'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견제 장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임 허용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나 로비 논란도 주요 취재 대상이다.

### 독자투고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다.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스프링클러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사소한 보일지 몰라도 위급한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이 제도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을 완성하는 제도라는 점에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만드는 안전한 일상

서 의미가 크다.

불법행위는 '습관'이 되고, 사고는 '순간'에 발생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관리 소홀이다. "잠깐이니깐 괜찮겠지", "오늘만 막아두자"라는 생각이 쌓여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화재 발생이라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신고포상제는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신고포상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시'나 '고발'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목적은 오직 예방이다. 불법행위를 조

기에 발견해 바로잡고,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전 통시장에서는 과거 시민 신고로 소화기 적치 불법행위가 시정된 이후, 실제 화재 발생 시 상인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한 번의 신고가 수많은 피해를 막은 셈이다.

시민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본다

소방관이 모든 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은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한다. 출근길에 본 막힌 비상구, 장사를 준비하며 본 방화

문 고정, 창고 한켠에 가려진 소화기. 이 모든 장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허위나 중복 신고는 제외되는 등 공정성도 함께 담보하고 있다.

한 건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안전한 일상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위승빈

###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음력 1월 17일)

48년생 살수라도 할까, 조심을 더해보자.60년생 부덕하는 입장 고기부 터속에.72년생 쇠뿔도 단숨에 거침없이 가보자.84년생 물리치 않은 지적하리를 숙여.96년생 힘들다중도 포기코리기달려간다.	49년생 고맙다 인사받는 땀 흘려보자.61년생 다리품을 팔아야 진짜 와만.73년생 여기저기 칭찬 기본은 구름을 탄다.85년생 혼자자 아니다. 동업자를 구해보자.97년생 서두르면 순해 기다림을 즐겨보자.	50년생 시간 낭비 없는 결판함을 보여.44년생 출타하는 표현속으로 해야한다.74년생 달라는 부탁외롭고 쓸쓸하다.86년생 생전은 끝 나고 회개하무르느라.98년생 순수에서 밀려난 조건이 되어야한다.
51년생 뜻깊은 자리에서 상을 기대해보자.63년생 심린했던 표정 무지 개가 떠난다.75년생 끈질긴 노력에 세상에 알려진다.87년생 배워가는 과정 모범생이 되어.99년생 지적보다는 격려, 품으로 안아주자.	52년생 청춘 열정으로 새로운 향해 가자.64년생 이름다운 시선 가슴이 울려.76년생 경향이 가르쳐준 지혜를 깨.88년생 선택의 기로 저울질을 더해.00년생 말하는 대담보다 실천에 옮겨보자.	53년생 미루고 있던 시작 앞으로 당겨.65년생 기운이 팔팔 나게 소식을 들려.77년생 보물창고 지갑 든듯하고 뿌듯하다.89년생 믿어 주는 만큼 믿음 흘려야한다.01년생 걱정 근심은 언제 그랬나워.93년생.
54년생 계몽을 피했던 후회가 남겨.66년생 도망치고 싶었던 부진을 벗어.78년생 반대도 성리도 모른 척.90년생 잘하고 있다에 마음을 그려.92년생 최고의 단짠과 같은 꿈을 향해가자.	55년생 분명한 거절로 후환을 막아.67년생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걸어.79년생 도전과 목표 합격점을 받아.91년생 익숙한 장소에서 주인공 행세.03년생 거절 당할까 두려움 땅을 쳐야한다.	56년생 신명 나는 놀이 중심으로 돌아.68년생 정 많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80년생 눈치 보지 않는 자유를 가져.92년생 고도의 집 중력 심세함을 더해.04년생 잠자던 도전정신 기가개를 펴보자.
57년생 이왕이면 다홍치마.70년생 기쁨이 사연 자랑으로 변해.82년생 피곤했던 살림 여유가 다시 온다.94년생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 나사.06년생 부러움의 대상 겸손하게 받아.94.	58년생 천천히 느리게 실패를 짊어.70년생 굶이 사연 자랑으로 변해.82년생 피곤했던 살림 여유가 다시 온다.94년생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 나사.06년생 부러움의 대상 겸손하게 받아.94.	59년생 깨닫는 재미 반기는 달콤하다.71년생 경계된 수순 예외가 없어야 한다.83년생 누리는 이름 보석처럼 빛.95년생 조마조마 결과만세기 불러.07년생 저도 그만인 승부백기를 들어.97.

### 기고

#### 심폐소생술 교육, '누구에게 어떻게'가 생존을 가른다

지난해 11월, 광주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질체질명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현장에서 운동 중이던 비변 소방관과 응급구조사가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것이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완벽히 지켜낸 덕분에 남성은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드라마틱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던진다. 만약 그 자리에 전문가가 없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현장을 누비는 구급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방법'을 아느냐보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았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한다고 말이다. 이제는 양적인 보급을 넘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설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 성인: 완벽한 기술보다 '행동하는 용기'**  
일반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교한 술기가 아닌 즉각적인 행동이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혹시 잘못될까 봐" 겁이 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경우다. 심정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하는 것이다. 성인 대상 교육은 가슴 압박 위주의 '핸즈온리(Hands-only) CPR'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반복하여 몸에 새겨야 한다. 특히 "갈비뼈 골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구조자가 느낄 심리적 장벽과 법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 학생과 고령자: '생활 습관'과 '현실적 대안'**  
학생들에게 CPR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연령별 신체 발달을 고려해,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119 신고와 주변 도움 요청을 병행하는 체득형 교육이 핵심이다. 반면, 가정 내 심정지의 최초 발견자가 되기 쉬운 고령자들에게는 '젊은이 기준'의 강도 높은 압박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무릎 보호 자세나 체력 부담을 줄인 압박법, AED 음성 안내 활용법 등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져야 포기하지 않고 구조에 동참할 수 있다.
- 특수 직군: '공간 맞춤형 실전 대응'**  
교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은 사실상 현장의 '예비 구급대원'이다. 이들에게 형식적인 이수증 중심 교육은 무의미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실제 공간의 동선을 반영한 훈련, AED 위치 확인, 팀 단위 역할 분담 등 현장 밀착형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구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준비된 시민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전남대 운동장의 사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시민"이 곁에 있을 때 생존율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증명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제 '얼마나 많이' 하는나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대상별로 정교하게 설계된 교육은 시민들에게 막연한 두려움 대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은 특별한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제대로 준비된 시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적은 우리 이웃의 운동장에서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위승빈

<b>광전매일신문</b>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년 147,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 경부고속도로 50주년